

## ※ 러시아 중세 시대 간략 구분

### I. 키예프 루시 시대 (9세기 중엽 ~ 1240)

1. 초기 키예프 중심기 (9세기중엽~1054) - 블라디미르 I세에 의한 기독교 수용(988)과 현제(賢帝) 야로슬라프의 통치
2. 연합공국 개화기 (1054~1175) - 키예프를 비롯한 체르니고프, 노브고로드, 블라디미르와 수즈달, 갈리치, 스몰렌스크, 폴로츠크 등 오늘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의 영토에 산재한 전통적인 도시의 탄생과 성장
3. 봉건 분열기 (1175~1240) - 블라디미르와 수즈달,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북동부 러시아의 세력 성장으로 인해 키예프 중심의 남부와의 대립과 갈등의 격화

### II. 몽고침입 - 타타르점령 시대 (1240 ~ 1480)

1. 몽고의 침입과 점령 초기(1240~1380) - 몽고의 침입과 타타르의 키예프 루시 지역 점령, 지배 공고화 시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인접한 서부 루시 지역은 그들의 지배
2. 쿨리코보 들판의 승리 이후(1380~1480) - 돈 강 근처의 쿨리코보 들판에서 모스크바의 공후 드미트리를 중심으로 연합군이 타타르의 <금장한국(金帳汗國); Золотая орда>의 주력군을 격파. 이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루시인들의 결집과 재건이 시작되고, 타타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

### III. 모스크바 (대)공국 시대 (1480 ~ 1598)

1. 이반 III세(1462~1505) - 모스크바 대공국 확립기, “황제”(Царь)의 칭호,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녀 소피아 공주와 결혼(1472), 그들과의 손자가 이반 IV세. 이후 아들 바실리 III세가 지배할 무렵인 1510년 경,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의 대두, 정착.
2. 이반 IV세(1533~1584) - 이반 뇌제(Иван Грозный)의 모스크바 대공국 전성기, 타타르인들의 카잔(1552~1555) 점령, 시베리아 정복, 흑해 연안으로의 진출, 서부의 리보니아 세력들과의 경합,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공국의 사회(법전 편찬), 경제적 기반(농노제) 조성. 후 병약한 아들 표도르(Федор)가 재위에 14년이나 있었지만 처남 보리스 고두노프(Борис Годунов)의 섭정으로 사실상 황제의 자리를 잃은 셈. 표도르의 죽음(1598)과 함께 류릭(Рюрик) 왕조는 끝이 남.

### IV. 17세기; 중세에서 근대로의 과도기

1. “동란기”(Смутное время) (1598~1613) - 과도기 중의 과도기. 섭정에서 제위에 오른 보리스 고두노프를 비롯 참칭자 드미트리의 등장과 이를 이용한 외세(폴란드, 스웨덴 등)의 개입으로 혼란 그 자체.
2. 로마노프(Романовы) 왕조 개창(1613) - 새로운 왕조의 개창과 새로운 왕조 확립의 시련기(종교분열)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개안(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을 통해 당대 서구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점차 서구에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 이후 표트르 대제 때 본격적인 <서구화> 개혁이 사실상 가능하게 한 사전토양이 이때 형성됨)
3. 표트르 I세 집권 (1682-1694~(1703)~1725) - Go WEST...!!!